

무역영어 + 국가공인자격

〈무역영어〉는 무역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영문서류 작성 등 무역관련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1967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시행되어 온 무역 관련 자격시험입니다.

자격개요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	영문해석·영작문·무역실무	객관식 75문항	90분
2급	필기	영문해석·영작문·무역실무	객관식 75문항	90분
3급	필기	영문해석·영작문·무역실무	객관식 75문항	90분

합격결정 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2018년 시행일정

회별	검정방법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1회	필기	1·2·3급	04.27~05.03	05.20	06.19
2회	필기	1·2·3급	08.24~08.30	09.16	10.11
3회	필기	1·2·3급	11.09~11.15	12.02	12.27

* 공인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 2016-1호

* 공인자격관리자 : 대한상공회의소



도전을 **꽃** 피우게 한 큰 가치

김경진



땅에 묻어둔 씨앗

대부분의 대학생이 그러하듯, 저 역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스스로의 꿈을 찾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입학하면서 학생 신분으로서 하지 못했던 일에 빠져서 학업이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흥미도 없었으며 출석도 잘하지 않고 놀기만 했던 생활을 반복하면서 1학년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 후에도 사회에 나가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던 스스로의 다짐은 한 달도 안돼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워드프로세스 3급 자격증의 확인서가 필요해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던 와중에 무역영어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나마 출석을 잘했던 과목의 교수님께서 이야기 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보고자 자격증을 취득해 보자고 마음먹고 난 뒤, 차근차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라고는 거의 해본 적 없는 탓에 공부하는 방법도 몰랐고, 전공수업도 대부분 듣지 않아 생소한 용어와 내용에 처음 시작부터 준비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토익 같은 공인영어시험조차도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안에 있는 영어를 읽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노력이란 것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었고,

매일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짧은 인생에서 목표와 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무역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무역실무 파트와 무역영어 파트를 나누어 공부하지 않고, 무역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무역규칙인 비엔나협약, UPC600, INCOTERMS 2010 등을 원문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무역영어도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무역규칙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쓰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신용장, 원산지증명서 등을 직접 작성해보고 수정하면서 무역실무와 영어공부를 동시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한 문단을 이해하는 데만 서너 시간이 걸렸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서 두 시간, 한 시간, 30분으로 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올려가게 되었고, 한 문제도 맞지 못했던 처음 시작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 둘씩 맞는 문항이 늘어가면서 공부에 대한 부딪힘과 자신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공 공부에도 흥미를 붙이게 되었고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싹을 틔우다

작은 개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매일의 작은 노력은 무역영어 1급 합격이라는 큰 결과를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합격이라는 성취감의 위대함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꿈꾸는 무역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 곱씹으면서 공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무역을 직접 경험해보자. 둘째, 경험을 통해 나의 진정한 꿈을 찾아보자.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는 꿈을 찾기 위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은 뜨겁지만, 줄기는 꺾이지 않는다

무역을 직접 경험해보고자 했던 저의 목표는 아주 작은 전시회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GTEP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에 본 부장으로 참여하면서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아이템을 선정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기업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매트리스를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아이টে으로 선정된 뒤 아무 정보도 없었고 오직 주소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말레이시아로 떠나 공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찾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찾던 회사와 공장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매를 의뢰했지만, 해당 회사의 매트리스에 대한 수입독점권을 한국의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 판매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장을 5번도 넘게 찾아가 컨테이너 1TEU를 1달 이내에 다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INVOICE, PACKING LIST, C/O, B/L과 같은 무역 서류들을 직접 취급하였고 국내 수입관세율과 가격 Breakdown, FTA관세특혜수혜 방안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매트리스를 가지고 Q사이즈 기준 약 330%의 이윤을 붙여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매트리스를 수입하면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의류벤더기업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기업 직원 분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평소 옷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 업종에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그저 사양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한국의 섬유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심에는 의류수출벤더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제와 가공이라는 낮은 이익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은 저로 하여금 큰 동기와 삶의 목표가 되어주었습니다.

꽃을 피우다

의류벤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취업을 위해 한 걸음씩 준비하였습니다. 무역영어를 공부하고 배운 것들은 면접 때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해 소개하였고, 한미FTA가 벤더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대 학생이라는 편견을 떨치고 당당히 입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역 영어라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과, 그 결과로 취득했던 무역 영어라는 자격증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마침내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입사 후 회사에서 저의 답변 때문에 합격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사 후에도 무역영어 취득은 저의 회사생활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섬유외류 기업의 특성상 신용장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무역영어를 공부하면서 신용장과 무역 전반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직장생활에 한층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원이지만 신용장을 보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신용장의 결제 방식에 따라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서 업무능력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관심도 없었던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 무역이라는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해보고자 노력했던 용기, 그리고 바이어와 메일을 주고받고 결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또 납기를 맞추기 위해 공장과 직접 교류하는 사회에 나온 직장인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역영어라는 우연히 만난 자격증 하나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소위 지방대 학생이라는 편견을 떨치고 당당히 입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역영어라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과, 그 결과로 취득했던 무역 영어라는 자격증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큰 경험을 선물해준 무역영어는 저에게 너무도 큰 감사함이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